

기술연구원

바다와 배 그리고 사람의 안전은 우리의 손 안에!



▲ 기술연구원은 지난 1월 18~19일 양일간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하고 2008년 새해 포부를 다졌다.

이번 호부터 신설된 탐방란의 주인공은 지난 2007년 5월 직제 개편 이후 기술연구소에서 기술 연구원으로 개칭된 후 보다 큰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공단의 브레인, 기술연구원이다. 지난 1월 2일 부임한 최두성 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해 14명이 근무하고 있는 기술연구원은 연구기획팀(팀장 이희준) 및 기술연구팀(팀장 정광교) 2개 팀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연구기획팀은 연구방침 수립 및 시행, 자체연구사업의 조사·발굴·채택 및 평가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연구팀은 선박시설 기준의 연구, 검사기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해양사고예방을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두성 원장은, “연구원에 대한 위상과 역할을 대내외적으로 높이고, 연구 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줌으로서 직원 모두가 긍지를 가지고 즐겁고 편한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난 1년간 연구시설 등 제반 연구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간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한 연구원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 최두성 기술연구원장

국내에 있는 다른 기관 연구소들이 대부분 산업적인 측면에서 생산기술 개발이나 선박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공단의 기술연구원은 공단의 설립목적과 부합하도록 해상에서의 인명안전과 선박안전기술에 관한 연구를 중점 수행하여 다른 기관과 차별화 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화 방향에 따라 2004년도에 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자체연구사업과 해양수산부의 연구과제 수탁연구사업 등을 활발하게 수행함으로써 선박 안전기술에 관한 전문연구소로 발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연구업무 내실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또한, 기술연구원은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양보다는 질에 우선권을 두고 연구기획부터 연구 종료시까지 전과정에 대한 자체점검 및 평가를 통한 연구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두성 원장은, “연구업무 방향도 연구원 설립목적에 부응하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선박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개발에 최역점을 두고자 하며, 타 연구기관이 할 수 없는 특성화된 연구 업무를 수행하여 KST만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교류활동에 있어서 우리공단은 일본소형선박검사기구(JCI)와 소형선박 및 레저선박의 검사기술과 방법에 관한 교류 및 KOICA를 통하여 알제리와 『선박안전성 제고사업』을 수행하는 등 활발한 기술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기술연구원은 앞으로 국제해사기구(IMO)의 관련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대변하고, 해사 선진국과의 교류를 통하여 공단 직원의 기술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동아시아 및 후진국과의 선박검사제도를 교류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선박안전 관련 제도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중국어업선박검험국(ZY)과 MOU 체결

끝으로 최두성 원장은, “앞으로 기술연구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하며, 우리 공단이 『해양안전 토달서비스 기관』으로 성장해나가는 데 기술연구원이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선박안전기술에 관한 전문연구소를 표방한 우리공단의 기술연구원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고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 People Inside



연구기획팀 최경일 과장

“나는 바다를 사랑한다” 연구기획팀 최경일 과장의 신념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승선생활을 하는 동안 화재, 충돌, 조난 등의 해양사고 등을 경험하고 ‘선박의 안전은 내가 책임지겠다’, 다짐하고 공단에 입사한 최경일과장은 울산지부, 포항지부를 거쳐 작년 5월에 연구기획팀으로 부임하였다. 지난 2004년 우수친절직원상(이사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상(2007년 바다의 날)등을 받았으며, 현재 연구기획팀에서 연구기획, 관리 및 성과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두 아이(남매)의 아버지이며 든든한 가장으로서 공단의 자원봉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최경일 과장은, “바다를 사랑하면서 앞으로 공단에 필요한 일꾼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기술연구팀 이기동 대리

기술연구팀 이기동 대리는 배움을 즐기는 사원이다. 유조선의 기관사로 승선하면서 기계장치 제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승선 후 대학원 진학하여 선박 기관의 제어 시스템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쌓고 지난 2003년 우리공단에 입사 후 검사제도부를 거쳐 현재는 기술연구원에서 기관관련 연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선박안전분야의 연구가 정확한 전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할 때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하는 힘든 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데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이기동 대리는, 힘들고 지칠 때 마다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를 한번씩 되뇌이면서 마음을 다진다고 한다. 곧 예쁜 공주님의 아빠가 될 예정인 이기동 대리, 파이팅!



- 취재 : 기획홍보팀 황주원 -